

반도체 특화단지 등 공동 추진 ‘젠걸음’

市·道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11개 신규협력과제…“대도약·번영 함께 이루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선 8기 상생에 손을 맞잡았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신규과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 전환 기후동맹 선언 등 총 11건이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에 1천만㎡ 규모로 조성해 광주·전남에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 디지털헬스케어’와 ‘전남 면역치료’의 시너지 창출로 국가적 미래산업

을 견인할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위해 실무TF를 구성하고 용역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 광주·전남이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나주와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교통망 구축, 광주-완도간, 광주-고흥간, 광주-영암-진도간 고속도로 구축으로 시·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이자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지역공공의료 사명감 역할을 할 국립 의과대학을 조속 설립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주·전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및 직류산업을 육성하고 광주·전남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기후동맹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쌀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등 광주·전

남 우리쌀 소비촉진에도 노력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공동영으로 관광 브랜드 사업을 상호 협력 추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총 37건(신규 11·추진중 과제 26)의 공동협력과제는 지난 14일 양 시·도 간 논의를 거쳐 이날 확정됐다.

이에 양 시도는 앞으로도 시·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의 현안문제는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큰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전남의 단합된 힘과 저력으로 광주와 전남이 역사적인 대도약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화답했다.

박성강기자



한·중 수산물중지 치어 방류 행사 29일 오후 목포시 죽교동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열린 한·중 공동 수산물중지방류 행사에 참석한 해양수산부와 주한중국대사관, 목포시 관계자들이 참조기 치어를 바다와 연결된 수조에 풀고 있다. 한·중 양국은 꽃게와 말뚝치 치어를 영광과 전북 부안 연안에도 방류할 예정이다.

강시장 “트램, 市 예산으로 설치 검토”

광주 도심 핵심시설 연결 최대 1천억원 소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농성역-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간 트램 설치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램노선은 광주 도심 내 핵심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 광주역-송정역을 연결하려면 5천억원 정도 소요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농성역-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간 사업비는 최대 1천억원 가량이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강 시장은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형태를 국가 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1 메타 N-복합체’”라고 밝힌 뒤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 유통센터 3천억원, 트램·도로 등 SOC 구축 6천억원 등 9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논란 등이 불거졌다.

지난 6일 현대백화점그룹이 챔피언스필드 인근인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복합쇼핑몰을 검토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트램을 설치하면 복합쇼핑몰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최대 난제인 접근성과 교통 환경 영향 문제와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난 19일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시로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오직 시민 편의와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성강기자

道, 71개 ‘유망 중기’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3년간 시설·운영자금 융자 상향 등 지원

전남도는 31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71개 사를 ‘2022년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재무구조 건전성·수익성·성장성, 기술력, 일자리 창출 등에서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곳이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3년 동안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를 상향, 시설자금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운

영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3년 간 투입할 예산은 시설자금 최대 1천420억원, 운영자금 최대 355억원 규모다.

이자 지원도 늘려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금리 지원을 2.0%에서 2.5%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금리 지원을 1.1%에서 1.4%로 확대한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혜택도 준다.

도가 조사한 결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지원한 115개 기업이 여러 방면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분야 별 평균 매출액 4%(737억원), 수출액 20%(859억원), 연구개발(R&D) 투자액 25%(175억원), 고용 1%(54명)가 증가했다.

실제로 함평에서 전자부품소성용 내화물을 제조하는 ㈜와이제이씨는 지난 2020년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1년 만에 매출액 44%(147억원), 고용 21%(31명)를 올리는 등 전남 경제를 이끌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주민주도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해야”

김태진 서구의원 제안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주민주도형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놀이터가 단순한 공원 설비에 머무는 것보다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는 각 동을 대표하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51억원을 투입, ‘다같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획일적인 놀이터 개념에서 탈피해 정수어린이공원에 ‘친환경 질라인’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다같이 놀이터 사업의 성과에서 봤듯이 이제는 획일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

이 직접 운영·관리해 마을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운천 어린이공원은 학생총회와 마을총회 때마다 환경개선이 마을의 1순위로 꾸준히 올라올 정도로 이를 담당할 마을 공동체 인프라가 탄탄하다”며 “시비 확보를 통해 마을일자리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형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희기자

새 단장 전남해양수산물과학관 내일 재개관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관은 31일 “여수에 자리한 해양수산물과학관 체험수족관이 리모델링과 본관동 안전 등급 상향 공사를 마치고 오는 2일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체험 수족관에는 파릇파릇한 벽면녹화 수조와 생동감 있는 체험이 가능한 닥터피쉬·잉어류 수조를 마련했다.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블랙립

상어, 화이트팁상어 등 상어 수조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을 스크린 화면에 띄워보는 라이브스캐치 등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콘텐츠도 조성했다.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부재, 건물 외벽 균열부, 지붕 방수층 등 보수·보강 공사도 마무리했다.

변은진기자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고흥군의회 출범”

작은 소리에 드워 기울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